

2008 신흥경제 5대 포커스

세계지역연구센터

1. 경기회복을 위한 ASEAN 국가들의 대응과 향후 전망
2. 흔들리는 인도의 금융시장
3. 오일머니에 빠진 중동
4. 러시아 석유생산 정점 지났다?
5. 유망 산유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

* *Global Economic Issue* :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전략

주요 내용

- ▶ 유가 및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과 세계경제의 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 들어 ASEAN 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에서 고물가와 저성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ASEAN 각국의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위기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제적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 인도의 주가지수가 2008년 상반기 동안 40% 이상 하락하고 환율이 약세로 반전되는 등 인도의 금융시장이 BRICs로 각광받기 시작한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
 - 해외자본 이탈, 물가상승, 재정적자의 확대와 고금리 등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인도 금융시장의 혼란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며, 2008년 경제성장률은 8%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올해에만 7천억 달러 이상의 오일머니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동지역은 정부부문 투자확대를 토대로 6%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풍부한 유동성과 수입물가상승으로 인해 중동지역에서는

각국 정부의 물가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년래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 2008년 상반기 러시아의 일일 원유 생산량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음.
 - 기존 유전의 산유량 감소, 석유회사의 높은 조세부담, 인프라 부족과 민간기업의 투자부족 등이 산유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채굴세 개정 조치 정도로는 러시아의 산유량을 다시 증가세로 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 브라질이 최근 연이은 대규모 유전 발견에 힘입어 유망 산유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브라질 정부는 석유산업 관련 세제개편 및 정유산업, 조선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석유산업에 대한 국가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새로 발견된 대규모 유전을 개발하는 데 총 6,000억 달러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개발비용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음.

1. 경기회복을 위한 ASEAN 국가들의 대응과 향후 전망

가. 위기의 2008년

-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던 ASEAN 국가들은 2008년 들어 경제성장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2007년 12월 아시아개발은행(ADB)가 발표한 동남아 국가들의 2008년 경제전망에서 ASEAN 전체에 대한 GDP 성장률을 2007년의 6.4%에서 0.4% 낮은 6.1%를 전망함(표 1 참조).
 - 전망치 발표에 포함된 ASEAN 9개국 중 인도네시아만이 2007년도 경제성장률보다 상향된 전망치를 예상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에는 모두 2007년도와 동일하거나 하향 조정된 경제성장률을 전망함.
- 그러나 2008년 7월에 수정 발표한 2008년도 경제전망에서 아시아개발은행은 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8개국에 대한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함.
 - 2007년 12월에 6.1%였던 2008년도 ASEAN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5%로 낮추었는데, 이는 2007년 ASEAN 지역 경제성장률 6.5%에서 1.0% 낮아진 수치임.
 -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이 2007년도 경제성장률보다 2.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함.

표 1. 동남아 국가들의 GDP성장률 추이 및 2008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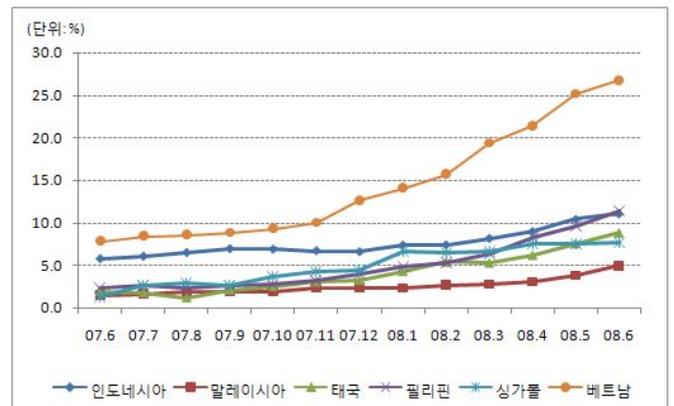
국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기존	수정
인도네시아	4.8	5.0	5.7	5.5	6.3	6.4	6.0
말레이시아	5.8	6.8	5.0	5.9	6.3	5.9	5.4
필리핀	4.9	6.4	4.9	5.4	7.3	6.4	5.5
싱가포르	3.5	9.0	7.3	8.2	7.7	6.3	4.9
태국	7.1	6.3	4.5	5.1	4.8	4.8	5.0
베트남	7.3	7.8	8.4	8.2	8.5	8.5	6.5
캄보디아	8.5	10.0	13.5	10.8	9.6	8.0	7.5
라오스	5.8	6.9	7.3	8.3	8.0	7.9	7.7
미얀마	13.8	13.6	13.6	12.7	n.a	n.a	n.a
ASEAN전체	5.4	6.5	5.7	6.0	6.5	6.1	5.5

자료: ADB (2007. 12), Asia Economic Monitor 2007; ADB (2008. 4),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8

나. 경제성장 둔화의 배경과 각국의 대응

- ASEAN 지역의 경제둔화에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불안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2008년 들어서면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물가는 2008년 6월까지도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음.
 - 가장 심각한 물가상승을 겪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2007년 11월에 두 자리 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후, 2008년 4월에는 물가상승률이 20%를 넘어섰으며 지난 6월에는 무려 26.8%라는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각각 2008년 5월과 6월부터 두 자리 수 물가상승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 6월 물가상승률이 1.3%에 불과했던 싱가포르도 1년 후인 2008년 6월에는 무려 7.7%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2008년 4월에 발표한 ADB 경제성장률 수정치가 2007년 12월 전망치보다 상승한 태국조차도 1년 전 1%대에서 현재 8%를 넘어서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그림 1. ASEAN 주요국들의 소비자물가상승 추이



주: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의 2008년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추정치임.
 자료: Global Insight

- 특히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 유가상승과 세계 곡물가격 급등은 서민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ASEAN 지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불러옴.
 - ASEAN 각국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에 들어감.

■ 먼저 ASEAN 각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긴축재정 및 공공요금 동결과 같은 강력한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를 웃도는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은 2008년에만 기준금리를 3차례(8.75% → 12.0% → 14.0%)나 인상하였고, 철, 시멘트 등에 대한 가격통제를 실시하고 있음.

-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도 2008년도 들어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함.

- 말레이시아는 국가가격위원회를 설치하고 30개 품목에 대한 가격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태국은 정부와 소비재 생산업체의 협력을 통해 60개 소비재 제품에 대한 소매가격을 5~15% 인하한다는 정책을 추진함.

■ 또한 유가 및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국내소비 위축을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실행하고 있음.

-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인 필리핀의 경우 2008년 상반기의 쌀 가격 폭등은 정국 불안으로 연결됨.

◦ 이에 필리핀 정부는 쌀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하였고, 쌀과 옥수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철폐하였으며, 수입쌀 증가에 연동한 보조금을 증액함.

- 태국은 경유에 대한 보조금을 2년 만에 부활시켜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총 14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또한 최저임금 인상(태국, 필리핀 등)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환급(싱가포르) 등을 실시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국내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자국 화폐절상 유도(싱가포르), 외화대출 규제 및 국영기업의 신규투자 제한(베트남), 식량 비축 계획이나 장기적인 쌀 증산 계획(말레이시아) 등 자국 상황에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음.

- 이러한 ASEAN 국가들의 경기부양 및 물가안정을 위한 각국의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 <표 2>에 정리됨.

표 2. ASEAN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및 물가안정 대책

국가	주요내용
베트남	경제운영전략 수정(성장위주 → 물가안정위주), 금리 인상(현재 14%), 긴축재정, 공공요금 동결, 외화대출 규제, 국영기업의 신규투자 제한
싱가포르	싱가포르달러 절상 유도, 식량 수입선 다변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소득세환급)
태국	기준금리 인상, 유류소비세 감면, 소비재 소매가격 5~15% 인하, 최저임금 인상, 14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필리핀	석유제품과 쌀 수입관세 인하, 쌀과 옥수수에 대한 수입제한 철폐, 정책금리 인상(현재 5.75%), 최저임금 인상
인도네시아	쌀, 식용유, 대두, 소맥 등 식품가격안정화 정책 발표, 수입관세 인하, 금리 인상
말레이시아	가격통제(30개 품목), 국가가격위원회 설치, 식량비축계획 발표, 보르네오섬 쌀 증산계획 발표

자료: ASEAN 관련 웹사이트에서 발췌 · 정리

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ASEAN 각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불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함.

- ASEAN 국가, 특히 최근 들어 급격한 경제불안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 외국투자은행이나 신용평가 회사들의 시각은 부정적임.

◦ 외국기관들은 성장에 중심을 둔 ASEAN 국가들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 봉착할 경우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정부의 능력과 경험, 그리고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냄.

- 그러나 최근 들어 ASEAN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둔화와 물가 불안정이라는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짐.

■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단기간에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의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다시 한 자리 수로 안정되기까지는 최소 1~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8년도 경제성장률도 베트남 정부의 7%보다 낮은 6%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ASEAN 회원국들의 경우에도 향후 1~2년간은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기 위한 조정기간을 거치면서 낮은 경제성장률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ASEAN 지역의 2008년도 하반기 경제는 2007년까지의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국가별로 2007년 동기대비 1~3%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며 ASEAN 전체로도 1% 이상 낮은 성장이 예상됨.

- 그러나 이러한 전망도 각국의 국내 물가상승이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물가가 안정을 되찾지 못하거나 세계경제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점에서 2008년도 하반기는 ASEAN 지역의 국가들의 경제적 위기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여겨짐.

연구진:

- 김한성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hskim@kiep.go.kr, Tel: 3460-1087)
- 정재완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jwcheong@kiep.go.kr, Tel: 3460-1051)
- 배희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hybae@kiep.go.kr, Tel: 3460-1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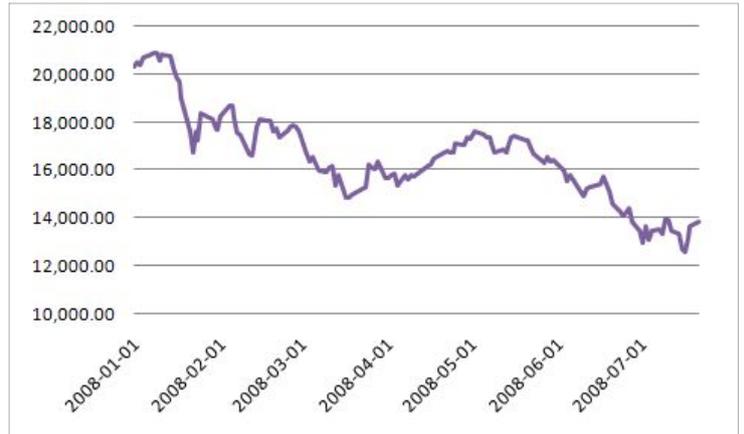
2. 흔들리는 인도의 금융시장

가. 최근 인도 금융시장 현황

■ 인도 증시¹⁾는 금년 1월 10일 SENSEX가 21,207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약 6개월 만인 7월 16일 12,514로 41%(8,693포인트)의 급락세를 기록함.

1) 2003년 외국인에게 개방된 인도 증시는 당회계연도 주가지수가 5,591포인트에서 2007/08년도 14,651포인트로 4년만에 약 3배 가량 증가하여, 현재 미국, 일본에 이어 전세계 세 번째로 주식 보유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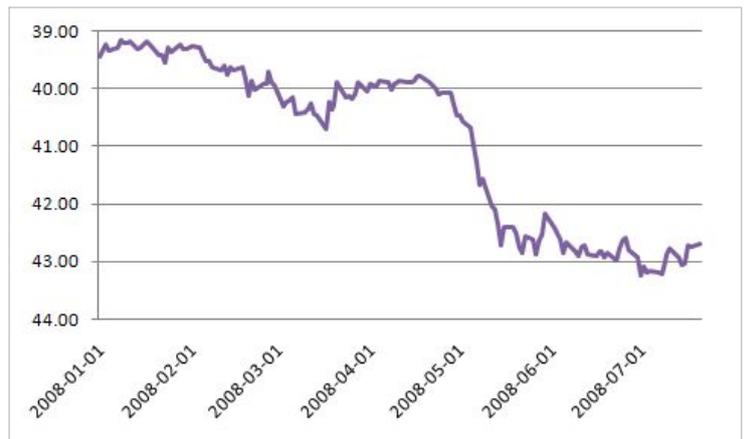
그림 1. 뭄바이 SENSEX 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 증시폭락과 더불어, 인도경제의 고성장과 함께 강세를 보이던 루피화도 2008년 4월 16일~5월 15일 한 달간 달러당 39.84루피에서 42.71루피로 7.2% 오르는 등 빠르게 평가절하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음.

그림 2. 달러화대비 루피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건조한 성장세를 지속해온 인도 은행업도 대출 증가율이 예금 증가율을 앞서면서, 국영은행인 Union Bank of India의 경우 2008년도 예대마진이 2.8% 축소될 것으로 예상함.

■ 이러한 금융시장의 불안은 인도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가져와,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이 최근 잇달아 인도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하는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본의 추가 이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 7월 들어 S&P가 인도의 신용등급을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낮출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영국의 신용평가사 Fitch는 15일 인도의 신용등급 전망에 투자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BBB-를 부여²⁾했음.

2) 이는 중국에 비해 여섯 단계 낮은 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할 경우

나. 금융시장 혼란의 배경

- 미국발 신용위기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해외 금융기관들은 아시아 및 주요 신흥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음.
- 인도 증시에 투자한 외국기관투자자들은 기간 중 60억 달러(2007년도 인도 증시에 유입했던 자금 200억 달러의 1/3)의 순매도를 단행하며 증시 폭락에 일조했음.
- 정치적 불안정과 재정적자 확대 등 미흡한 국내 정책적 대응도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음.
- 미국과의 핵협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립정당을 구성하던 좌파연합이 탈퇴하고 연내 조기총선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정국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식품 및 석유에 대한 보조금과 공무원 임금 인상 등 예산 외항목(off-budget items)³⁾의 지출이 증가하여 2008년 1사분기 인도의 재정적자가 GDP의 10%를 넘어서면서, 신용등급 하락의 주 요인이 되었음.

표 3. 인도의 통합재정적자(회계연도 기준)

	(GDP 비중, %)			
	2005	2006	2007*	2008*
중앙정부 재정적자	4.1	3.4	3.1	2.5
주정부 재정적자	2.4	2.7	2.2	2.6
통합 재정적자	6.7	6.4	5.3	5.1
주요 예산외항목적자	1.7	2.5	2.4	4.3
재정적자 합계	8.4	8.6	7.7	9.4

주: * 추정치

자료: Morgan Stanley and Reserve Bank of India

-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Agflation),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인도의 물가도 급상승하고 있으며, 무역적자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루피화 가치 하락을 야기함.
- 도매물가지수가 정부의 억제 목표치인 5.5%를 넘어 지난 7월 첫 주 13년래 최고 수준인 12%까지 급등하는 등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
- 2008년 2사분기 인도의 석유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49% 상승하여 무역적자 규모 확대(48%)를 주도함.

투자가 아닌 투기로 분류됨.

3) 예산외항목에는 식량전력비료석유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농민대출 상환면제 등이 포함됨.

- 경상수지 적자에 더하여, 해외자금의 이탈 및 재외인도인의 본국송금액 감소 등은 달러대비 루피화 평가절하를 더욱 부추기고 있음.
- 인도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난 7월 29일 기준금리와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각각 0.5%포인트와 0.25%포인트 상향조정 하는 등 올 들어 세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함.⁴⁾
-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인도의 5월 산업생산은 지난 2003년 이후 최저인 3.8% 성장을 기록했으며, 특히 제조업은 2.9%, 자본재 생산 성장률은 2.5% 성장에 그쳤음.

다. 향후 인도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전망

- 전세계 유동성 축소⁵⁾ 및 인도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면서, 위험기피적인 해외자본이 추가적으로 대인도 투자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음.
- 대인도 해외투자 유입액 중 단기투자가 70%를 넘는 상황에서, 인도경제에 대한 전망이 악화될 경우 해외 투자자금이 급속히 회수되면서 인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음.
- 식품 및 석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국내물가 상승,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적자 부담 가중,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및 이에 따른 환율약화 등도 2008년도 하반기 인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국제 식품가격의 상승에 더하여 인도 국내적으로 문순기간의 강우량 부족으로 농작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⁶⁾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
- 또한 2009년 총선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는 인도정부는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중의 자산은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에 집중될 것으로 여겨짐.

4) 이로써 인도 기준금리는 2007년 1월 7.5%에서 2.5%포인트 인상한 9.0%,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2007년 2월의 6.0%에서 3.0%포인트 인상하여 9.0%를 기록함.

5) Morgan Stanley(7/9자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2008년 1.5%, 2009년 0.7%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건전성 회복이 단기간 내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6) 7월 중순 콩 및 채소류, 과일 등은 2주 전보다 10% 가격이 상승함.

- 한편 인도정부가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하여 신용등급을 투자등급으로 유지 및 회복하지 않는다면, 해외자본의 추가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인도 경제는 2008년 하반기에도 경기둔화세가 이어지면서, 3년 연속 9%대 성장을 달성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 IMF는 2008년 7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4사분기 인도 경제의 성장이 7.6%로 더욱 둔화되면서, 2008년 전체로는 8.0%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음.

- EIU도 7월 보고서에서 대출로 구입하는 내구소비재 수요가 급감하고 신규 투자가 축소되면서 2008년 인도의 산업생산은 6.5% 성장에 그치고, GDP는 7.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음.

연구진:

최운정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Tel: 3460-1039)

3. 오일머니에 빠진 중동

가. 밀려드는 오일머니

■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중동 국가들로 유입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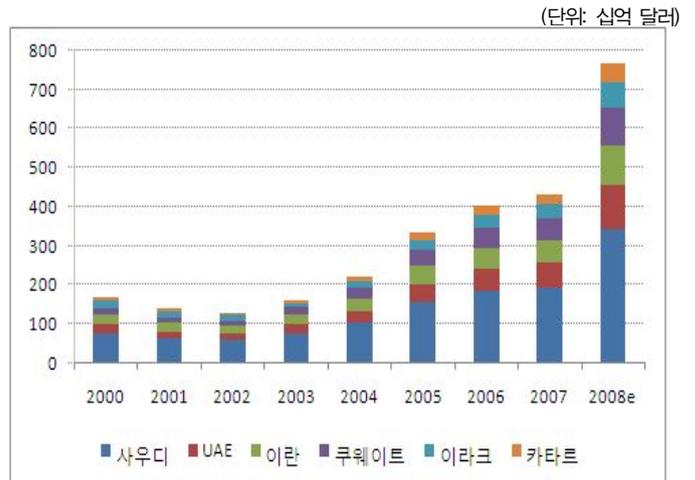
- 2007년 한 해 동안 중동의 6개 OPEC 회원국에 유입된 석유판매수익은 4,326억 달러로 추정됨.

- 이는 실질가격으로 환산해도 과거 석유파동기의 정점인 1980년 수준을 상회하는 것임.

- 2008년에는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일머니가 더욱 증가하여 최소 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최근 5년간 이 지역으로 유입된 오일머니의 누적규모는 무려 1조 5천억 달러에 이르러 이 지역의 오일붐과 고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그림 1. 중동지역 국가별 오일머니 유입액



자료: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U.S. government.

■ 중동 산유국들은 오일머니를 사용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정부지출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나머지 자금은 국부펀드(sovereign fund)를 조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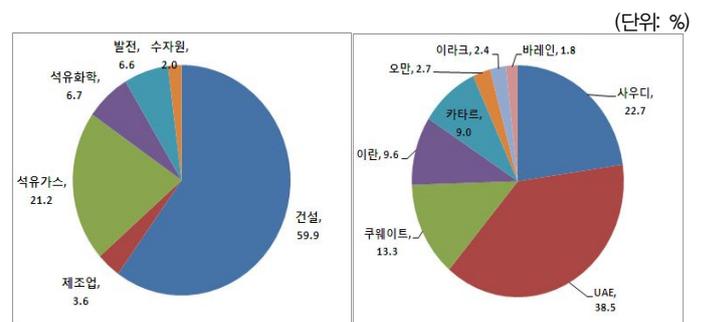
- 중동국가들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대응하여 발전 시설, 담수화 시설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세계적인 에너지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산업다각화를 위해 석유 및 가스, 석유화학 플랜트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음.

◦ 중동경제 전문 주간지인 MEED에 따르면 2008년 6월 말 현재 중동지역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프로젝트 규모는 2조 2,6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40.4%가 증가한 수준임.

- 중동 산유국은 총자산 약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에는 이 펀드를 이용하여 세계 각 지역에서 기업 인수합병(M&A)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그림 2. 중동 산유국 프로젝트의 부문별 및 국가별 비중



주: 2008년 6월 말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프로젝트
자료: MEED

나. 오일 붐과 인플레이션

■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중동 국가들은 최근 3년간 6%에 육박하는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서브프라임 위기와 같은 세계적 금융불안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꺾이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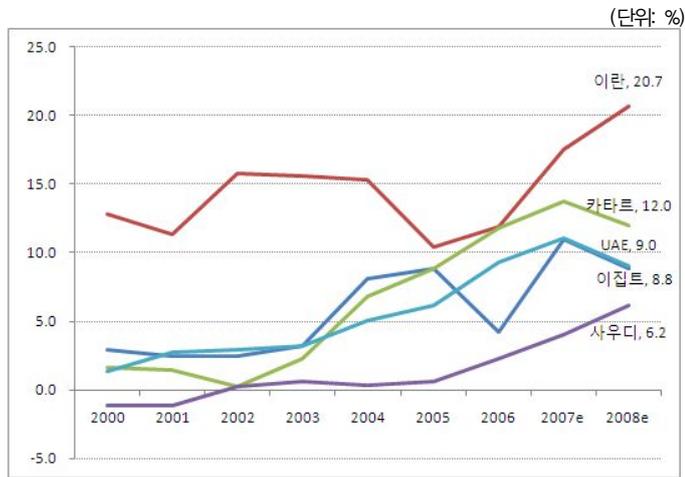
-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지출 확대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소비 증가가 고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IMF에 따르면 중동산유국의 2006~07년 공공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7% 수준이며, 이 지역의 총통화량 증가율은 20%에 이르고 있음.

■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 유입은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적 긴장까지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중동 산유국들은 과거 3%이내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오일 붐 이후 인플레가 가속화되어 2008년에는 국가별로 6~20%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중동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IMF

- 중동국가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환율제도, 통화정책, 건설 붐, 국제곡물가격상승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오일붐으로 외국기업과 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자 사무실 및 주택 임대료가 급등했는데, UAE 정부는 임대료 상승이 전체 물가상승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했음.

◦ 걸프지역 국가들은 달러에 페그된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

고 있는데 달러와 더불어 자국 통화도 평가절하되면서 곡물을 비롯한 수입품 물가가 상승한 것도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GCC국가들은 고정환율제 때문에 이자율을 인상하기 어렵는데, 명목이자율은 2%이지만 실질이자율은 마이너스 4~10% 수준에 이르러 자산에 대한 투자분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건설붐으로 인한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과 숙련 건설인력의 임금상승 등도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높은 인플레이션이 저임금 외국인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사회적 긴장까지 유발하자 각국 정부는 물가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 UAE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7%, 시멘트 도매가격 인상률은 15%로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으며, 주요 슈퍼마켓과는 식료품 가격 동결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음.

◦ 하지만 이런 가격제한 조치는 음성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일부 물품의 공급부족을 야기하고 있음.

다. 경제성장세 지속 전망

■ 국제유가가 중동지역의 경제 상황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상황에서 당분간 국제유가의 급락가능성은 낮으므로, 중동경제는 2008년 하반기에도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신흥시장의 석유수요급증과 비OPEC 국가의 석유생산 부진으로 국제적인 석유수급상황은 계속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하반기 평균유가는 12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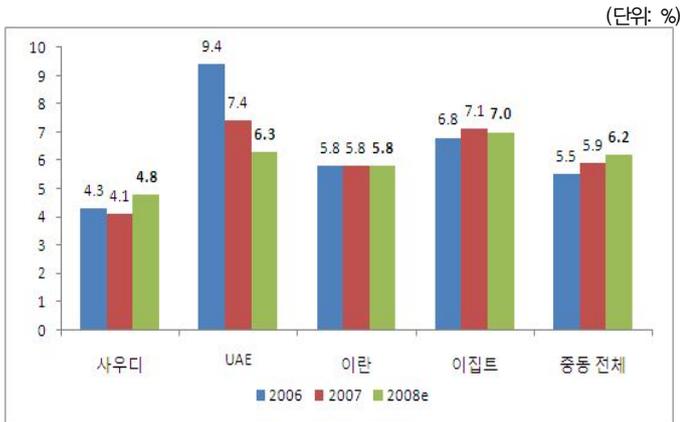
- 이미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계획되어 있고, 정부가 충분한 여부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두바이나 아부다비를 비롯한 주요도시의 인구증가율이 20%에 육박하여 교통, 전력, 담수,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하반기 중동지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6.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역시 당분간 1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IMF의 수정전망치(2008년 7월 발표)에 따르면 중동지역의 2008년 평균성장률은 6.2%, 물가상승률은 1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음.

그림 4. 2008년 중동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연구진:

박복영 아중동팀 연구위원

(bypark@kiep.go.kr, Tel: 3460-1149)

4. 러시아 석유생산 정점 지났나?

가. 2008 상반기 산유량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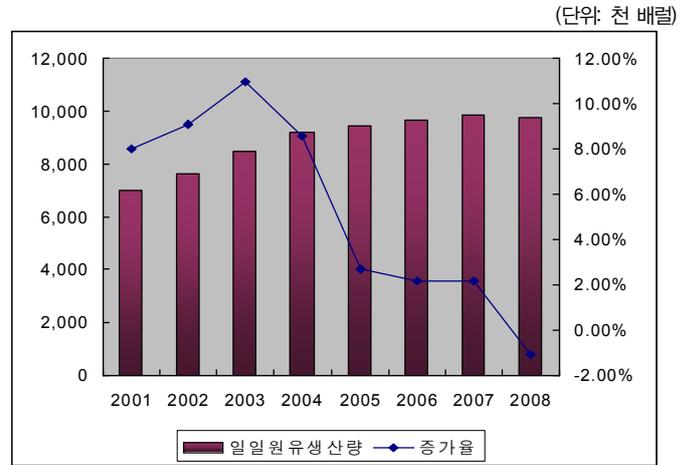
■ 2008년 전반기에 러시아의 일일 원유 생산량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원유생산을 증대시키려는 러시아 정부의 목표에 차질이 생겼음.

- 러시아 연료에너지정보센터인 RIATEC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일일 원유 생산량은 976만 배럴로,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하였음.

-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금년 2사분기 일일 원유 생산량이 지난 1사분기에 비해 0.4% 감소하였으며, 6월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감소세로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원유생산국인 러시아의 산유량 감소는 국제 유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음.

그림 1. 러시아 석유 생산량 동향



주: 2008년은 1~6월 추정치

자료: 러시아 에너지산업부, Oxford analytica에서 재인용

■ 2008년 상반기 중에 최대 국영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석유회사들에서 채굴량이 감소했음.

- 러시아 최대의 민영 석유회사인 루코일과 가스프롬의 자회사인 가스프롬네프트는 올해 상반기 석유 채굴량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3%, 5.3% 감소하였음.

- 그러나 국영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는 올해 상반기 원유 채굴량을 전년 동기대비 24.8%나 증가시켰음.

◦ 이는 2003년 이후의 석유회사 재국유화 과정에서 로스네프트가 인수한 대형유전에서 원유 생산이 본격화된 때문임.

표 1. 2008년 상반기 러시아 주요 석유회사의 일일 원유 생산량

회사명	일일 원유 생산량 (백만 배럴)	증가율
루코일	1.79	-3.3%
로스네프트	2.28	24.8%
TNK-BP	1.38	-1.7%
수르구트네프테가스	1.24	-5.1%
가스프롬네프트	0.63	-5.3%
타트네프트	0.53	1.1%
슬라브네프트	0.4	-6.2%
루스네프트	0.29	1.5%

주: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RIATEC, Troika Dialog, Vedomosti에서 재인용

나. 원유생산 감소의 원인과 대책

■ 러시아의 원유생산이 감소한 원인은 기존 유전의 산유량 감소와 생산설비 노후화, 석유회사의 과중한 조세부담, 국내외 투자 감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러시아 최대의 원유생산 지역인 서시베리아 유전은 이미 구소련시절에 개발된 곳으로서, 이곳의 산유량 저하가 러시아 전체 산유량 감소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

○ 기존 유전의 생산설비 노후화와 신규 유전의 탐사 및 생산을 위한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실정임.

- 과중한 조세부담이 석유회사들의 생산, 탐사, 개발에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법인세, 수출세 및 채굴세 명목으로 석유회사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세수로 거둬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푸틴 정권하에서 시작된 국가주도의 에너지정책이 계속되면서 '가스프롬', '로스네프트'와 같은 대규모 국영기업들이 원유생산 분야를 장악해가는 것도 외국인 및 민간 석유생산업계의 투자심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임.

○ 최근 TNK-BP사의 주식을 양분하고 있는 영국 BP사와 러시아 AAR사 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투자기업들과의 합작기업 또는 컨소시엄 운영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법작제도적 장치의 미비도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임.

■ 올해 7월, 러시아 정부는 석유기업들의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 채굴세(Mineral Extraction Tax)를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세법은 2009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 원유 채굴비용에 대한 면세상한선(tax-free threshold)이 1배럴당 9달러에서 15달러로 높아짐에 따라 러시아의 석유생산기업들은 연간 약 4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음.

○ 러시아의 채굴세는 톤 당 고정 세액에 유가변동지수를 곱해 계산되는데, 면세상한선의 상승은 유가변동지수를 낮추어 채굴세 인하의 효과를 낳게 됨.

- 또한 신규 유전 및 80% 이상 고갈된 유전에 대한 채굴세가 면제될 예정임.

○ 현 채굴세법에서는 사하공화국, 이르쿠츠크 주,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등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유전 생산 증대를 위해 이 지역의 원유 누적생산량이 2,500만 톤(약 1억 7,500만 배럴)이 될 때까지 채굴세를 면제하고 있음.

다. 2008년 러시아 원유 생산량 전망

■ 위와 같은 채굴세 개정이 러시아의 원유생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회사들이 느끼는 채굴세 인하 효과는 극히 적을 것임.

○ 루코일의 폐둔 부사장은 러시아가 향후 20년 동안 일일 원유생산량 1천만 배럴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1조 달러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며, 현재의 감세조치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을 증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2008년도 원유 생산량이 2007년에 비해 최소 1%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동시베리아의 신규 유전에서 원유생산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한 금년에는 원유생산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지난 해 일일 원유 생산량 25만 배럴을 기록하여 높은 생산 증가율을 보였던 사할린-1 프로젝트의 체이포(Chayvo) 유전도 2008년 일일 생산량을 약 16만 배럴로 낮춰 전망하고 있음.

- 국영 석유회사인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트는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주요 유전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2007년에 로스네프트의 자산 매입으로 발생한 부채만도 약 27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주로 유코스사의 자산 매입을 위한 220억 달러 상당의 차입에서 비롯된 것임.

연구진:

황지영 유럽팀 연구원

(hjydream@kiep.go.kr, Tel: 3460-1095)

5. 유망 산유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

가. 브라질의 최근 오일러시(Oil Rush) 현황

- 브라질이 최근 연이은 대규모 신규 유전 발견에 힘입어 유망 산유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2007년 11월에 브라질 국영석유회사(Petrobras)는 Santos 분지의 BM-S-11 광구에서 추정매장량이 50~80억 배럴에 달하는 Tupi 유전을 발견했음.
- 2007년 12월 20일에는 BM-S-21 광구에서 1-SPS-51 경질유전(輕質油田) 발견
- 2008년 1월 21일에는 Santos 분지 BM-S-24 광구에서 대형 천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Jupiter 가스전 발견
- 2008년 3월말에는 Santos 분지 BM-S-8 광구에서 2.5억~7.5억 배럴 추정량의 대형 Bem-te-Vi 유전 발견
- 최근인 2008년 4월 41일에는 브라질 석유가스청(ANP)이 비공식적으로 Santos 분지 BM-S-9 광구에서 330억 배럴로 추정되는 대형 유전(Carioca)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브라질은 2008년 6월과 7월에도 Santos 분지에서 Guara 및 Golfinho 유전을 잇달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표 1. 최근 브라질 유전 발견 현황

분지	광구	유전	발견일	추정 매장량 (억배럴)	지분 구성(%)
Campos	Caxareu	Caxareu	2007	미확인	Petro100
Santos	BM-S-10	Parati	2006	미확인	Petro 65, BG 25, Partex 10
	BM-S-11	Tupi	2007.11	50~80	Petro 65, BG 25, Galp 10
	BM-S-21	SPS-51	2007.12	미확인	Petro 80, Galp 20
	BM-S-24	Jupiter	2008.1	천연가스	Petro 80, Galp 20
	BM-S-9	Carioca	2008.4	330 (비공식)	Petro 45, BG 30, Repsol 25
	BM-S-8	Bem-te-Vi	2008.5	2.5~7.5	Petro 66, Shell 120, Galp14
	BM-S-9	Guara	2008.6	미확인	Petro 45, BG 30, Repsol 25
	4-GLF-23-ESS	Golfinho	2008.7	1.5	Petro 100

주: 1) Petrobras
자료: ANP; JOGMEC

- 위와 같은 잇단 대형 신규 유전 발견에 힘입어 앞으로 산유국으로서 브라질의 위상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2006년 말 현재 브라질은 122억 배럴의 원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세계 17위 석유매장국임.
- 그러나 최근 발견된 유전들의 공식 매장량을 추가할 경우에 브라질의 석유매장량은 210억 배럴로 증가하게 되며, 이로써 브라질은 세계 12위의 석유매장국이 됨.
- 여기에서 비공식 매장량 330억 배럴을 더할 경우, 브라질의 석유매장량 540억 배럴로 증가하는바, 이는 브라질이 러시아에 이은 세계 8대 석유매장국으로 부상하게 됨을 의미함.

그림 1. 브라질의 석유매장량 순위 현황 및 전망



자료: BP; ANP; JOGMEC

- 새로 발견된 유전에서 본격적 석유생산이 향후 몇 년 이내에 개시될 예정이어서 브라질의 산유량은 곧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 2008년 5월 Petrobras는 예정보다 1년 빠른 2009년 1분기 부터 Tupi 유전의 원유생산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 Tupi 유전의 초기 생산량은 1일 2만 배럴에서 2010년까지 10만 배럴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 또한 현재 평가 중인 Carioca 유전의 경우 4~5년 이내에 생산을 개시할 예정임.
- 이 같은 석유생산 증가에 힘입어 당초 Petrobras의 석유생산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Petrobras는 석유생산(국내외 포함)을 2007년 1일 230만 배럴에서 2012년 350만 배럴, 2015년 415만 배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음.

나. 브라질 정부의 석유산업정책 변화

■ 연이은 유전의 발견에 고무되어 브라질 정부는 전략자원의 국가관리 차원에서 석유산업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음.

- 먼저 2007년 말 실시된 제9차 석유광구분양 시 원유발견 가능성이 높은 Tupi 유전 주변의 41개 광구를 국제입찰에서 제외시킴.

- 또한 브라질 광업·에너지부 장관은 로얄티, 세제 및 특별참가세(Special Participation Tax)⁷⁾ 등 현재의 석유부문 양허계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사를 피력함.

◦ 특히 유전 발견 가능성이 높은 암염하층(巖鹽下層, pre-salt) 광구에 대해서는 특별참가세를 종전 10~40%에서 50~6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함.

- 전문가들은 2008년 10월 지방선거와 2010년 대선 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석유산업법의 개정보다는 특별참가세 등 석유생산세의 개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브라질 정부는 또한 2008년 5월 대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추선 등 선박의 자체 제작을 위해 50억 달러규모의 조선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함.

■ 브라질 정부는 국내 수요 충족 및 정유 수출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기존 정유시설 개선 및 신규 공장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브라질의 정유시설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데다 중동 수입산 경유(輕油) 정제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어 최근 브라질에서 주로 생산되는 중유(重油) 정제에는 적합하지 않음.

표. 2 브라질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 계획

프로젝트명/지역	주요 내용
Comperj	- 총 84억 달러 투자(Petrobras 46억 달러 투자) - 생산규모: 중유 15만b/d
Pernambuco	- 2010년 생산을 목표로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와 합작으로 41억 달러 규모(브라질 24억 달러 부담)의 정유공장 건설 - 생산규모: 디젤과 LPG 등 20만b/d
Rio Grade do Norte	- 2010년 생산을 목표로 가솔린 생산 공장 설립
Ceara	- 2014년 생산을 목표로 주정부와 30만b/d 규모의 정유공장 건설 검토
Maranhao	- 2013년 생산을 목표로 주정부와 60만b/d 규모의 정유공장 설립 검토

자료: Oxford Analytica

다. 천문학적 개발비용이 관건

■ 브라질에서 발견된 대규모 유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개발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 특히 최근 발견된 대부분의 유전들이 초심해 암염하층(巖鹽下層)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Petrobras는 향후 5개년(2008~12년)간 석유탐사 및 생산에 651억 달러를 포함, 총 1,124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나 다른 민간기관들이 추정하고 있는 개발비용은 이 금액을 크게 상회함.

◦ 예를 들어 스위스 UBS은행은 신규 유전개발에 총 6,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음.

◦ 초기단계의 개발비용은 배럴당 최소 12달러로서, 약 500억 배럴의 추정매장량을 고려한다면 총 6,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연구진:

권기수 미주팀 전문연구원

(kskwon@kiep.go.kr, Tel: 3460-1081)

7) 브라질에서는 생산량이 많은 유전에 대해 광구의 수익성, 위치, 작업년수, 생산수준을 고려해 특별참가세를 부과함. 현재 생산량 8만 b/d의 경우 특별참가세는 10~40%임.

* Global Economic Issue: 주요국의 기후 변화전략

■ 기후변화 관련 협상동향

-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UN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COP13)에서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기후변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출범시킬 것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음.
- 2009년 12월에 개최되는 COP15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이번 협상에서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미국 및 개발도상국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OECD 회원국이며 세계 제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2005년)인 우리나라로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기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미국

-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할 정도로 선진국 중에서는 기후변화에 소극적인 국가임.
- EU와 일본이 교토의정서상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반면 미국은 이렇다 할 국내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도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인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재 민주당 및 공화당 대통령 후보 모두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 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EU

- EU는 기후변화문제에 가장 적극적이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국별 감축의무를 할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엄격한 국별 감축의무를 요구하면서도 EU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에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적극적임.

■ 일본

- 일본은 국별 감축의무 할당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가능한 한 일본의 감축부담을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일본은 각국의 감축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바탕을 둔 감축의무 할당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은 개발도상국에도 감축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일본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의 에너지 관련 상품 및 기술의 수요를 확대하고 이를 일본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음.

■ 주요 개도국

-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여전히 선진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에너지 절약은 중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이를 위해 일본과의 환경·에너지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기타 브라질, 인도 등의 국가들도 중국과 비슷한 입장임. 브라질은 바이오 연료의 수출증대에 관심이 있으며 인도는 아직 분명한 입장이 알려져 있지 않음.
- 러시아는 Annex I 국가이나 아직 국가의 에너지 효율이 높지 않다는 점, 향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포스트교토체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임.

■ 한국의 대응방향

- 기후변화에의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조속히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를 이른바 '저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KIEP**

연구진:

정성춘 일본팀 부연구위원

(jung@kiep.go.kr, Tel: 3460-1202)